



6년만에 가진 필라델피아 한인성당 34명의 견진자들이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와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어디에 있든 우리 최종 목적지는 하느님 나라

필라델피아 한인성당 34명 견진성사

【펜실베이니아】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서울대교구)는 지난 11일, 서울대교구 북미주사제단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 중 필라델피아 한인성당(주임 김순진 요셉 신부)에서 34명 견진성사를 주례했다. 6년 만에 열린 견진성사에는 김순진 요셉 신부와 주국돈 마르티노 보좌신부가 공동집전했으며 250여 명이 넘는 가족과 신자가 참석했다.

유 주교는 강론에 앞서 “오늘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과 견진성사는 깊이 결합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례 때 받은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그 성령을 견진성사로 재확인하고 새롭게 다짐하는 성사가 바로 견진성사”라며 견진자들을 축하했다.

유 주교는 미사 내내 마치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듯 열정적으로 힘 있게 신자들의 마음을 두드리며 우리 안에 모신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주시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유 주교는 강론에서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된 사람들은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갖고 살고 있다. 그러나 내가 한국에 있다 한들 하느님과 일치하지 못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어디에 있든 우리 최종 목적지는 하느님 나라이고 우리의 고향은 하느님이다. 하느님 안에서만이 참 행복이 있고 바로 내가 뿌리 내리고 태어난 고향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인이다.”고 했다.

이어 “세례는 하느님 자녀로서 그분을 믿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영적인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귀울여 주시기에 우리가 그 어떤 시련과 유혹을 이겨낼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견진성사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당장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성사의 은총이 우리 안에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 성령을 끊임없이 선택하고 그 안에 살기로하는 결정은 나에게 있다.”고 했다.

또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지 못하도록 세속적인 욕망, 욕심, 무관심 온갖 부귀영화 등 그런 것들로 꽂 채워진다면 성령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견진자들에게는 무거운 책임과 의무도 따른다. 새로 거듭 태어난 확고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앙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봉사하는

삶으로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성체성사는 신비다. 세상에 신비로 가득하다. 대표적인 것이 생명이며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신비다. 인간은 조그마한 벌레 한 마리, 풀 한 포기조차 창조하지 못한다. 나를 창조해 주신 하느님은 영원히 잊지 않고 우리를 위해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미사 때 내가 받아 모신 그 성체에 성사를 통해 나를 찾아주신 주님을 우리의 일상에 떠올리며 그 성체의 힘을 깊이 누리며 살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견진자들은 한 달간 김순진 신부의 지도로 견진성사, 한국교회사, 성경, 교회와 공동체 생활에 대한 교리에 참가하여 성사를 준비해 왔다. 미사 후 견진자들은 유 주교와 함께 주일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겸한 축하식을 가졌다.